

# 흙을 닮은 자유로움, 도예가 신상호

도예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흙을 이용해 새로운 예술 장르를 개척한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장 신상호 교수.  
그는 다른 이들이 발견하지 못한 가능성을 끌어내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자유로운 예술가다.  
흙내음 물씬 풍기는 자연에 취한 신상호 교수의 삶과 공간을 만나본다. 에디터 원미숙 사진 임재문



1 조각과 도예의 경계를 무너뜨린  
신상호 교수의 작품 '아프리카의 꿈'.  
2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장 신상호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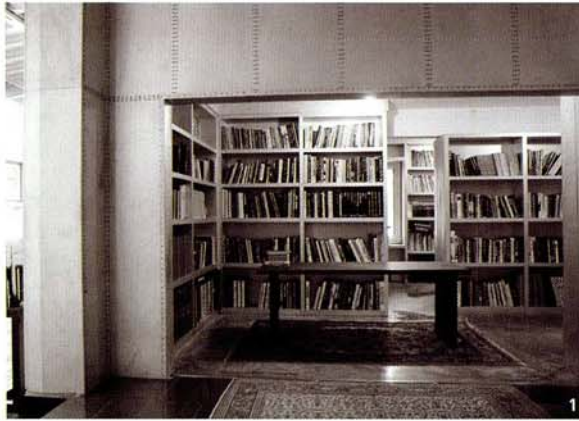
경기도 장흥, 울창하게 우거진 숲 한가운데 자리한 신상호 교수의 집은 자연과 어우러진 거대한 미술관을 연상케 한다. 넓은 정원을 뛰노는 듯한 동물 조각과 건물 외벽을 장식하고 있는 깊은 색의 불 그림(Fired Painting)··· 집안 곳곳 그의 작품들이 적재적소에 조화롭게 자리를 잡고 있다. 동물의 몸에 사람 눈을 한 '아프리카의 꿈' 연작들은 평화로운 이곳에 어울리지 않을 듯한 괴기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지만 자연과 묘한 조화를 이룬다.

“아프리카에 갔다가 영감을 받아서 만들기 시작한 작품이에요. 누구나 인간의 원초적인 모습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전 그런 성향이 아주 강했던 것 같아요. 아프리카에서 보고 단번에 반해버렸거든요. 인간의 원초성을 작품에 담아낸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자연 그 자체죠.”

자연이 가르쳐주는 그림의 철학 이곳에 터를 잡은 지 30년, 아무것도 없던 땅에 하나하나 만들어온 집이기에 곳곳에 신상호 교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 집 주위 수로에 뿌려놓은 싱싱한 꽃잎들과 창밖에 걸려 있는 아기자기한 장식물들이 그의 세심한 보살핌을 말해준다.

“생각날 때마다 하나씩 손을 봐요. 생각나면 나무를 한 그루 더 심고, 돌아보다가 떠오르면 새로운 건물도 짓고, 정원도 건물도 완성된 것은 없어요. 한번에 완벽하게 다 고쳐버리면 다음에 할 일이 없어서 싫거든요. 자연 속에 하나하나 꾸며가는 재미가 아주 쏠쏠하답니다.”

- 1 전시관 한쪽에 마련된 도서관.
- 2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지는 신상호 교수의 작업 공간.
- 3 그의 작품 세계를 보여주는 전시 공간.



그에게 가장 좋은 친구는 바로 자연. 넓게 펼쳐진 정원에는 일년 내내 사랑을 쏟아 가졌을 나무와 꽃들이 가득하다.

“자연은 365일이 달라요. 정원에 심은 꽃은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내일은 또 다르죠. 자연에 묻혀 살면 심심하지 않냐고 많이들 물으시는데 시시각각 다른 모습으로 말을 걸어오는 자연과 함께하다 보면 심심할 틈이 없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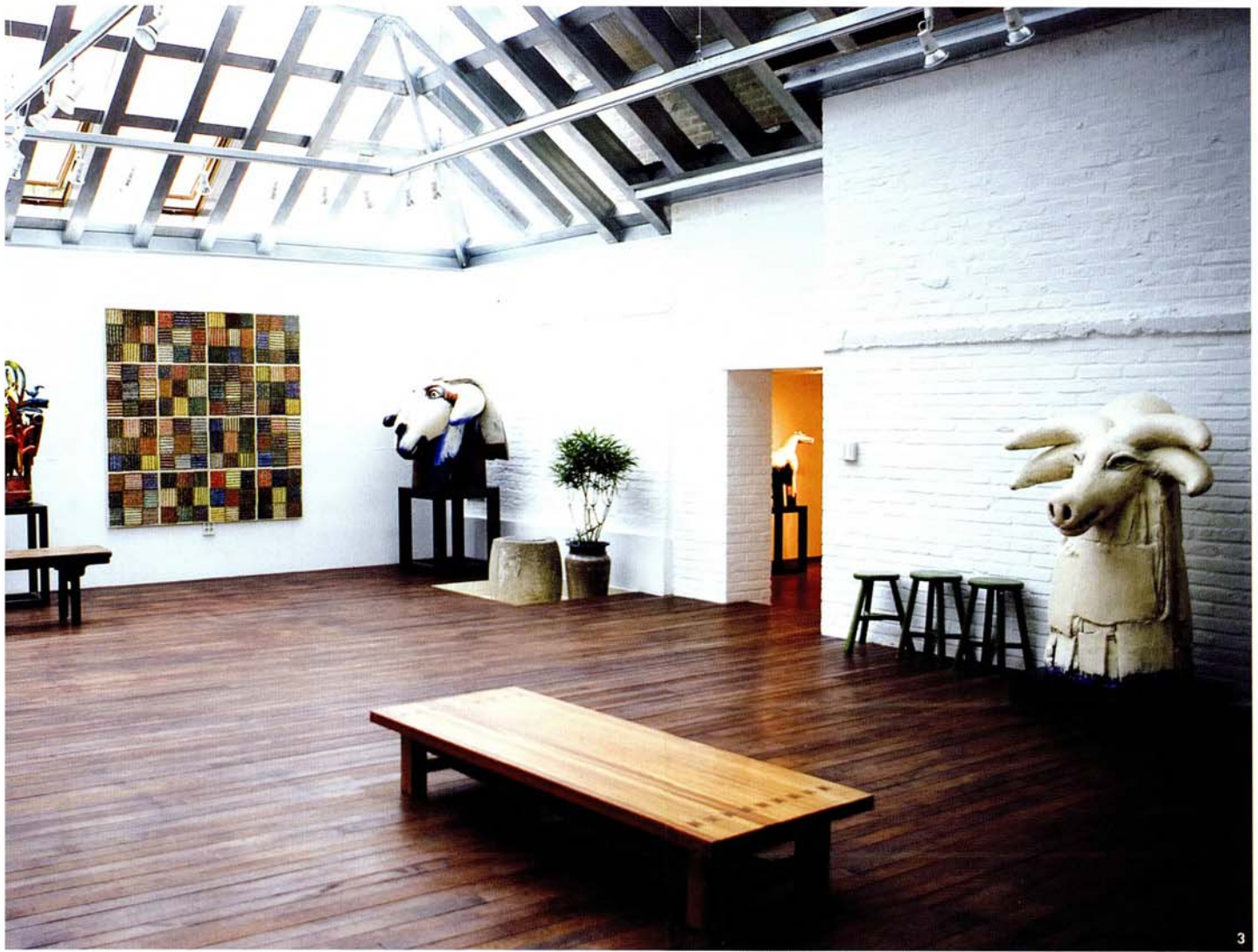
정원 한구석에는 물탱크를 올려놓았던 골조를 개조하던 흔적이 남아 있다. 헐어버릴까 하다가 동화 속에 나오는 듯한 2층짜리 작은 건물로 개조하기로 했다고.

“언젠가 완성되겠죠. 집안 곳곳이 무질서하긴 하지만 제 손으로 조금씩 정돈해가고 있어요. 꾸미다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으면 나중에 하면 되는 거죠. 풀 한 포기를 다듬더라도 내 모습을 정돈하듯 바르게 정돈하며 자연 속에서 즐거움을 찾고 싶어요.”

훤이 가르쳐준 무한한 가능성 그의 집 옆에는 커다란 두 동의 작업실이 있다. 작업실 밖에는 거대한 도조들이 가득하고 작업실 내부에는 유약을 입힌 불 그림들이 가마에 들어갈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모두 같은 훤으로 만들었다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각기 다른 모습의 작품들.

“훤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가능성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모습이 달라지는 거죠. 도예는 흔히 알고 있는 그릇 외의 쓰임을 원하고 다른 분야도 기존과 다른 새로운 시도를 원해요. 이러한 필요가 만나면 훤의 가능성이 새로운 예술 장르로 탄생될 수 있죠.”

신상호 교수의 집안 곳곳에는 그가 새로이 창조해낸 ‘불 그림’이 걸려 있다. 불 그림은 흙판에 그림을 그려서 여러 번 구워낸 것으로 집안에 걸면 그림이지만 밖에 걸면 건축물의 일부가 되는 독특한



3

장르, 유약으로 그린 그림은 가마에서 구워지는 동안 독특한 빛깔을 얻어 그것이 걸리는 공간에 깊은 맛을 더한다.

**가능성을 향한 또 한 번의 도전** 최근 신상호 교수는 '건축과 도예의 만남'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시작했다. 내년엔 김해에 들어설 'Clayarch Gimhae Musieum' 외부를 4600개의 불 그림으로 붙일 계획이다.

"건축물 전체를 작품으로 붙이는 작업은 세계 최초죠. 도예와 건축이 동등하게 접목되는 것도 처음 있는 일이고요."

도자기가 건축의 자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신상호 교수의 새로운 발상은 우리나라에 세계 최초 도예 건축물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의 집에서 보았듯, 불 그림으로 마무리한 건물은 그 자체가 예술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예술을 접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머지않아 미술관이 철마다 다른 작품으로 옷을 갈아입는 진풍경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예술적인 것은 실용적이지 않다'는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생활 속에 예술을 어떻게 조화롭게 적용시키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예술이 접목된 건물이면서 그 안에서 살고, 일하고 쉴 수 있다면 그 이상 좋을 수 없겠죠."

그가 만지는 것은 '흙'이다. 하지만 그의 손을 거친 흙은 변화를 거듭해 새로운 이름을 얻고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다. 아름다운 빛깔의 분청사기, 웅장한 도조, 깊은 맛을 지닌 불 그림...

하지만 그가 만들어낸 것은 아름다운 작품만이 아니었다. 변화를 통해 얻어낼 수 있는 새로운 힘, 자연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그는 몸소 증명해내고 있다. 흙과 불, 그리고 자연을 믿고 따라온 그의 삶에는 앞으로도 흙을 닮은 무한한 자유가 함께할 것이다. ㉞